



즉시 배포용: 2024년 8월 30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노동절 주말을 앞두고 뉴욕 주민들에게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 및 기타 모기 매개 질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도록 독려

뉴욕 주민들에게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취할 것을 독려

올해 주 전역에서 보고된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사례 20건 발생

뉴욕주 여러 카운티의 말에서 동부 말 뇌염 확인

[뉴욕 주민에게 보내는 Hochul 주지사의 메시지 보기](#)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뉴욕 주민들에게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취하고 웨스트 나일(West Nile) 바이러스 및 동부 말 뇌염(Eastern Equine Encephalitis)과 같은 질병으로부터 보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추가 안전 수칙이 담긴 동영상 소셜 미디어에 게시하고 뉴욕 주민들이 계속해서 이 소식을 전파하도록 독려했습니다. 여기에서 [전체 동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이번 노동절 주말에 밖에 나가 뉴욕주의 아름다움을 즐기길 바라지만,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와 같은 질병을 옮기는 모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건강을 염두에 두고 안전하게 즐기기를 바랍니다. 예방은 모기 매개 질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며, 노출된 피부를 옷으로 가리고 모기 기피제를 바르는 것만큼이나 간단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보건부에](#) 따르면 현재 뉴욕시 외 지역에서 웨스트나일 바이러스(West Nile virus, WNV) 인체 감염 사례가 10건 보고되었습니다. 뉴욕시 [보건 및 정신위생국\(New York City Department of Health and Mental Hygiene\)](#)에 따르면 뉴욕시에서도 10건의 확진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뉴욕주 보건부 커미셔너인 **James McDonald**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기에 물리는 것은 흔히 일상의 경미한 성가신 일 중 하나로 여겨지지만, 올해는 예년보다 더 많은 모기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기피제를 사용하고 고인 물을 제거하며 적절한 복장을

착용하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모기는 적어도 9월 말까지 지역사회에 존재할 것이므로 야외에서 시간을 보낼 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각한 질병을 유발하고 경우에 따라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는 감염된 모기에 물려 사람과 일부 동물에게 전염됩니다. 모든 모기가 1999년 뉴욕주에서 처음 확인된 WNV를 옮기는 것은 아닙니다. 2020년 이후 뉴욕시를 제외한 뉴욕주에서 115건의 WNV 감염 사례와 8명의 사망자가 보고되었습니다.

WNV에 감염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런 징후나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질병이 발생하면 보통 감염된 모기에 물린 후 3~15일 후에 증상이 나타납니다. 경증 WNV 감염자는 발열, 두통, 몸살, 때때로 피부 발진이나 뺨뺨이 부어오르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중증 우한 페럼 바이러스 감염자는 갑작스러운 두통, 고열, 목 경직, 근력 약화, 정신 상태 변화, 떨림, 경련 및/또는 마비 증상을 보일 수 있으며, 일부 경우 중증 우한 페럼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동부 말 뇌염(Eastern equine encephalitis, EEE)은 사람과 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기에 의해 전파되는 드물지만 매우 심각한 바이러스성 질병입니다. 올여름 뉴욕주에서 14마리의 말이 양성 판정을 받았지만, [현재 뉴욕주에서 보고된 사람 감염 사례는 없습니다.](#)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감염되기 쉽지만 50세 이상 15세 미만은 중증 증상이 나타날 위험이 가장 높습니다. 감염된 모기에 물린 대부분의 사람은 증상이 나타나지 않지만, 심한 경우 갑작스러운 두통, 고열, 오한, 구토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후 이 질병은 방향 감각 상실, 발작, 뇌염, 혼수상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EEE에 걸린 환자의 약 3분의 1이 사망하고, EEE에서 살아남은 환자 중 상당수는 신경학적 장애를 경험합니다.

EEE 또는 WNV에 대한 상용화된 인체 백신은 없으며, 최선의 예방책은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입니다.

WNV 및 EEE의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다음 예방 조치를 취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 야외에서 활동할 때는 특히 모기가 가장 많이 활동하는 시간대인 해질녘이나 새벽에 긴 소매 옷을 착용하세요.
- DEET, 피카리딘 또는 IR3535가 함유된 기피제를 사용하고 자외선 차단제 위에 발라 주세요. 기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피제 라벨의 사용 지침을 반드시 준수하세요. 어린이는 기피제를 직접 취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신 어른이 먼저 자신의 손에 기피제를 바른 다음 아이의 노출된 피부에 부드럽게 펴 발라주세요. 어린이 손에 직접 바르지 마세요. 실내로 돌아온

후에는 치료받은 아이의 피부와 옷을 비누와 물로 씻기거나 목욕을 시키세요.
동물 전용 벌레 스프레이로 반려동물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집의 창문과 문에 방충망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스크린이 찢어지거나 마모되거나 구멍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 양동이와 기타 용기, 수영장 덮개, 도자기 냄비, 수레의 물을 비웁니다.
- 사용하지 않을 때는 물놀이 풀을 비워둡니다.
- 배수구와 배수로의 막힌 곳을 열어 물이 빠지도록 합니다.
- 새 목욕탕의 물을 이틀에 한 번씩 갈아줍니다.

여행자는 뎅기열이나 말라리아와 같은 질병에 걸릴 위험이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뎅기열 바이러스의 전염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뎅기열은 네 가지 특정 뎅기 바이러스 중 하나에 감염된 모기에 물려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뎅기열은 고열, 심한 두통, 눈 뒤 통증, 관절통, 근육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뎅기열을 옮기는 모기는 주로 열대 지역에 서식하므로 여행자가 뎅기열에 걸린 채 미국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사례는 뎅기열이 유행하는 지역으로 여행하는 것과 관련이 있지만, 특히 남부 주에서 지역 뎅기열 바이러스가 간혹 전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라리아는 네 가지 말라리아 혈액 기생충 중 하나에 감염된 모기에 물려 발생하는 심각하고 때로는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감염된 암컷 모기는 인간 질병을 확산시킵니다.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감염이 해외 여행으로 인한 것이지만, 특히 플로리다와 텍사스 같은 주에서 지역 감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거의 모든 말라리아 사례가 해외 여행과 관련이 있지만, 드문 경우이지만 롱아일랜드와 뉴욕시에서 말라리아의 지역 전파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주로 모기에 물려서 전염되지는 않지만, 오로푸치(Oropouche) 바이러스는 카리브해, 중미, 남미에서 뉴욕으로 돌아오는 여행객들에게도 우려되는 질병입니다. 갯지렁이에 물려 전염되며 발열, 두통, 오한, 근육 및 관절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뎅기열로 오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일부 경우 신경학적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임신부가 오로푸치에 감염되면 임신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뎅기열, 말라리아, 오로푸치 발생 지역을 여행하거나 해당 지역에서 돌아오는 뉴욕 주민은 **WNV** 및 **EEE** 예방을 위해 권장되는 것과 동일한 예방 조치를 사용하여 벌레 물림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부 말 뇌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뎅기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라리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로푸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주지사 사무실에 업데이트 신청하기: ny.gov/signup 81336번으로 NEW YORK 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세요

[구독 취소](#)